







# 서초구, 전국 지자체 최초, 메타버스 플랫폼 내 어르신 문화여가 복합시설 조성



서울 서초구는 지난 9월 1일부터 메타버스(Metaverse) 게임 플랫폼인 네이버 '제페토'에 어르신들의 지역명소인 '서초구립 느티나무센터'를 가상 공간으로 만들고 참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제페토 내의 '서초구립 느티나무센터'는 실제 건물과 똑같이 구현되어 있어 평소 시설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익숙한 환경의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게 했다.

구는 어르신들이 가상공간을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9월말까지 55세 이상 서초구 어르신이 제페토에서 느티나무센터 시설을 견학하고 재미있는 동작의 인증샷을 서초느티나무센터에 찍어 보내면, 센터회원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쿠키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열고 있다.

구, 제페토 내 가상 복지관(서초 느티나무센터)을 열고, 어르신 대상 가상공간 체험 진행

스타일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메타버스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어르신들에게 알리고 성큼 다가온 미래를 체험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서초구립 느티나무센터에서는 9월 한 달 메타버스 이해를 돕는 인문 강좌(교육명 '한가위에 떠나는 느티행 메타버스')를 개설하여 메타버스의 개념과 의미, 우리 생활 속 메타버스의 종류 등을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어르신들이 아바타 생성에서부터 가상공간의 느티나무센터 방문하기 등 가상공간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메타버스 교육을 수강하는 홍은표(73세, 서초동) 어르신은 "스마트폰 속에서 나와 닮은 아바타가 내가 다니던 복지관을 이리저리 움직이는 걸 보니 신기하다. 아직 조작이 쉽지는 않아 답답하긴 하지만, 신기하고 손주하고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기대된다."며 교육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 금천구, 첫 번째 '청소년문화의집' 개관

9월 11일 오후 2시 온라인 개관식 개최



금천구가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청소년 전용공간인 독산청소년문화의 집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문화의집 시설 및 사업 소개, 청소년과 유관기관의 축하메시지, 청소년 동아리 축하 공연과 활동 영상 등이 공유됐다.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금천구 최초로 건립된 청소년 수련 시설로 지난 7월 연면적 336㎡, 지하 1층~지상 1층 규모로 조성됐다. 지하 1층에는 자치활동실, 스튜디오, 상담실이 있고, 1층에는 자유이용공간, 노래연습실 등 청소년의 문화와 여가를 위한 공간으로 구성됐다.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GBS 금천구 청소년방송국, △7번가 플라마켓, △풍네한바퀴, △학교로 찾아가는 뉴스포츠 클럽,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학습멘토링, △금천아트스쿨, △상상창미클래스 등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청소년 참여 활동을 운영할 계획이다.

프로그램 일정은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독산청소년문화의집 페이스북,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독산청소년문화의집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 개관 주간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똑똑똑! 전통 문패를 똑똑!!', '나만의 캘리그래피 그림책 만들기' 등 체험키트를 활용한 온라인 프로그램과 방문자 참여존 운영, 스텝 투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정동희기자

김미성기자

# iH, 추석 맞이 상생·나눔 실천

소래포구 어시장 활성화 지원 물품으로 풍성한 한가위 선물 마련

iH(인천도시공사)는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지역사회 동반상생 및 이웃사랑 나눔을 통한 일석이조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일 소래포구 어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사 노동조합·소래포구어시장현대화사업협동조합과 동반성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시장 내 26개의 젓갈 판매점에서 총 69백만원 상당의 젓갈세트(명란, 오징어, 가리비) 2,644개를 구매했다.



(위원장 정교현)은 모든이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바라는 마음을 담은 젓갈세트를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각 세대에 직접 방문 전달했다. iH 이승우 사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이 모이기 어려운 지금, 공사의 추석선물이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하고, 지역주민들과 더불어 잘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남기자

# 서울특별시 광진구, 웃어요~찰라! 숲나루공원 사진 콘테스트 개최

**숲나루 눈웃음 천사 사진 콘테스트**

— 용무기간 — 08.30 ~ 09.24

— 참가조건 — 숲나루공원에서 마스크를 쓰고 웃는 사진

— 주제 — 숲나루공원에서 찍은 웃는 사진

— 주최 — 광진구청

— 대상 — 1. QR코드를 활용한 촬영이 가장 많은 사진 2.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100명 이상 촬영한 사진 3.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100명 이상 촬영한 사진

— 시상 — 1등 1명, 2등 2명, 3등 3명, 4등 4명, 5등 5명, 6등 6명, 7등 7명, 8등 8명, 9등 9명, 10등 10명

— 문의 — 02-550-1233

# 서울시, 2021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개

서울시, 13일 다가온 가을을 맞아 새 문구로 단장한 꿈새김판 공개

"가을 끝자락이 되면 일사귀들이 떨어지죠.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인생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려놓자'는 뜻이요. 하나씩 내려놓으면 어느새 또다시 가득 차게 되니까요."

성큼 다가온 가을을 맞아 서울꿈새김판이 새단장을 마쳤다. 서울시는 2021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문안공모전을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15일간 진행했다. 당선작으로는 백세준씨의 <떨어진 게 아니라 내려놓은 거예요. 그게 인생이예요. 낙엽이 씩>을 선정하고 문안에 맞는 이미지 작업을 거쳐 9월 13일 오전에 선보인다.



"가을을 맞이하여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글귀"를 주제로 펼쳐진 이번 문안 공모전에는 총 1,155편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서울시는 백세준씨 외 5인의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2021년 가을편 서울꿈새김판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백세준씨는 선정된 문안에 대한 설명으로 "가을을 영어로 하면 'fall(떨어지다)'이다. 일사귀들은 봄, 여름 내내 떨어지지 않고 색깔만 바뀌다가 가을 끝자락이 되면 떨어진다. 그렇게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듯, 우리 인생도 많은 욕심을 가지지 말고 '내려놓자'는 뜻을 담았다. 하나씩 내려놓으면 어느새 또다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꿈새김판을 보게 될 시민들에게 "단풍이 들고 어느새 다 떨어질 때쯤에야 항상 뒤늦게 가을이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지나가는 가을을 한줄행으로 조금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 웃을 갈아입은 꿈새김판과 함께 시원한 바람의 계절, 가을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꿈새김판 문안선정위원회는 대상 선정 이유로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분위기가 침체되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으나 가을을 상징하는 낙엽을 통해 수동적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려놓는 것'으로 봄으로써 긍정적인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문구이기 때문에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은평구,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전용관' 운영

서울 은평구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지원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은평구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전용관'을 8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운영한다. '크라우드펀딩'이란 대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조달을 뜻하는 펀딩(Funding)을 조합한 용어로,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 등을 통해 다수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방식을 말한다.



'사회적경제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은 2021년 자치구 지역특화사업에 공모 선정된 사업 중 하나로 사회적경제기업에게 자금 조달의 방안 제공과 판로의 다각화를 목적으로 한다. '크라우드펀딩 전용관'의 펀딩 참여는 사회적기업 (주)마이컴퍼니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가능하다.

김미경 구청장은 "이번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이 은평구의 사회적경제 기업에게는 상품 소개와 판로 개척의 기회를 부여하고, 소비자에게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가치소비'를 유도해 은평구의 사회적경제가 활기를 찾는 첫걸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 강남구, 경유차 8928대에 환경개선부담금 7.7억원 부과

'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을 실현 중인 강남구가 이달 중 관내 경유 차량 8928대 운행자를 대상으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을 부과한다. 이달 중 2기분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이택스, 서울시 모바일 세금 납부앱,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보유한 자동차는 1대까지 부담금이 감면되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를 부착한 자동차도 3년간 면제된다. 연2회(3.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제도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합리적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환경부가 1992년부터 시행해왔다. 한편, 구는 환경개선 및 저탄소생활 실천을 위해 가정과 사업장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절감률에 따라 상품권, 현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등 '필(必)환경 도시'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정동희기자

**2021년 2기분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대상: 21.11~9.30 기간 경유차량\* 소유자  
\*2012년 3월 이전 등록·생산차량

방법: 고지서 전용계좌 납부, 이택스 전자납부, 서울시세금납부 앱 등

9.16~30

문의: 환경과 기획변화대응팀 ☎3423-6202, 6192

최만식기자

# 울진해경서장, 추석 연휴 대비 경비합정 긴급출동태세 점검



울진해양경찰서 채수준 서장은 13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경비합정 전용부두를 방문하여 긴급출동태세를 점검하고 일선 해양경찰관들과 소통 하였다. 채수준 서장은 경비합정·구조대를 순시, 긴급출동태세 유지를 최우선으로 당부하며 경비합정 각종 장비 작동 상태, 전용부두 시설 및 유류배지 안전 관리 상태 등 전용부두 전반을 점검하였다. 또한,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추석 연휴에도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과 의경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철저를 지시하였다. 채수준 서장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사고를 예방하고 최상의 가동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치안공백을 최소화하는 한편 빈틈없는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김기현/기자

# 충청남도, 선박사고 예방대책 관계기관 합동 점검

도, 13일 유관기관 합동 회의 개최... 문제점 진단·보완 논의

충남도는 13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도내 연안 시군, 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과 함께 '유관기관 합동 선박사고 예방대책 점검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선박사고 예방대책 점검 회의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낚시어선이 원산안면대교 교각과 충돌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사고 이후 해양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으며, 이번에 3번째 회의이다.

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기관별 발표 및 토론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선박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그동안 기관별로 추진한 사항을 공유하고, 문제점 진단 및 개선·보완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췄다.

도와 유관기관은 그동안 △낚시어



선 등 해양사고 예방대책 토론회 개최 △해양안전 종합계획 토론 및 기본계획 수립 △낚시어선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자체 마련 등을 추진해 왔다.

또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계절·시기별로 안전 점검 및 코로나19 감염 예방 방역 점검도 추진해 왔으며,

어업인과 낚시 이용객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홍보도 지속해 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구명뗏목 등 안전 장비 지원 △낚시어선의 영업시간 및 속도 제한 규정 강화를 위한 안전 운항 규칙 개정 △안전요원 승선 요건, 전문교육 이

수 조건 강화 △자동 조난구조 신고 장치 의무화 등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정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도 공유했다.

도는 이번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유관기관과 함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속 보완·추진할 방침이다.

조원갑 도 해양수산국장은 "지난해 선박 사망사고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꾸준한 현장 안전 점검을 하고 선박사고 안전관리에 더욱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추석 연휴 기간 도내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이 여유롭고 안전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군,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합동 선박 안전 점검 및 코로나19 방역 점검을 할 계획이다.

최정근/기자

## 이천시, 추석명절 쿠광물류화재 주민피해 점검하고 위로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쿠광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많은 피해를 봤던 주민들에 대한 쿠광 측 보상 등 후속조치 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화재발생 후 100여일이 지난 동안 쿠광측이 화재발생 직후에 보여준 태도와는 달리 피해보상 대책 노력이 미흡하거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더군다나 가림막 설치 등이 이뤄지지 않아 날씨에 따라 여전히 화재현장분진이 대기와 토양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진정성 있게 피해보상에 임하라는 내용을 공문을 포함하여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또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특히, 쿠광화재로 인해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한 차례 지하수에서 폐물이 검출되었고 화재분진 등을 흡입한 가족이 도축 후 유통불가판정을 받았다는 시민들의 항의도 있는 만큼, 피해지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필요성도 있다는 점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도 정기적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쿠광측이 피해보상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계속 취할 경우, 당초 이천시가 피해시민들이 요청 시 공익소송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피해주민들이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 공익소송 준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실상 미국회사인 쿠광이 여러 가지 이유로 보상절차를 지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고 피해시민들을 위한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추석을 맞아하여 쿠광물류화재 피해주민을 위한 입장문도 오늘 발표했다.

이성용/기자

## 시흥시, 야간 오토바이 소음은 이제 그만! '집중 단속' 나서



시흥시는 지난 7일 서해안로 오이도가 구간에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개조 등에 대한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지난 8월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한 것으로, 오토바이 소음기 및 LED 불법구조변경 5건, 불법 부착물 7건 등 총 12건을 단속해 5건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조치했다.

시는 배달대행 서비스 이용 급증에 따른 배달 오토바이와 레저용 오토바이 배기소음으로 인해 특히 야간과 새벽시간 주거지역 주민의 소음공해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안전 운행과 올바른 운전 습관을 통한 교통소음저감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이륜차의 불법사항에 따라 소음 기준을 초과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조치와 운행 차 소음 허용 기준을 준수하도록 개선 명령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야간 오토바이 배기소음 피해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는 주요 구간에 대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기소음 및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이 평온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소음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종균/기자

## 충북도, 임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 실시

추석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계도 홍보



충북도는 추석을 앞두고 9월 13일부터 9월 17일까지 도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선물용으로 소비가 늘고 있는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원산지표시 단속은 임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부정 유통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충북도와 청주시가 청주시 소재 재래시장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에서는 자체단속을 실시해 단속과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원산지 표시(수입국명, 국내산)를 하지 않는 행위, 원산지 허위표시 등이다.

충북도 임근목 산림정책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임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해 청정임산물 보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김원호/기자

**경기도의회**  
Gyeonggi-do Assembly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

도민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경기도의회가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 경상북도, 다문화학생 두개나라 언어 능력이 글로벌 경쟁력이다!

## 1 일, 경북도 주최 제 8 회 전국 다문화가족 자녀 이중언어 대회

경상북도는 11일 도청 동락관에서 '제8회 전국 다문화가족자녀 이중언어 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능력 잠재력을 활용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지원하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2014년부터 삼성전자 후원과 함께 전국대회로 격상해 올해 8회 째를 맞았다. 이번 대회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무관중으로 실시하고, 학생의 보호자도 1명으로 제한하고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눠 진행했다. 대회는 학생이 제출한 원고를 한국어와 엄마(아빠)나라 언어 2개 국어(이중언어)로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사전 동영상 심사로 진행된 예선

에는 전국 14개 시도에서 총 88명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예선에 신청한 부모나라 언어는 중국어(60명)가 가장 많았고 베트남어(17명), 일본어(5명), 러시아어(3명) 등 7개국 언어였다. 이중 본선 진출자는 20명(초등부 14명, 중·고등부 6명)으로 중국어 등 7개국 언어로 열띤 경연을 벌였다. 본선 경연결과 경남 김해수남고등학교 3학년 신혜민(중고등부)학생이 상금 300만 원과 여성가족부장관상을 받으면서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상금 150만원)은 경기과주 산내초등학교 6학년 엄남호(초등부), 경북 구미 황상초등학교



3학년 전아연(초등부)학생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대상 1(상금300만원) 최우수 2(상금 각150만원) 우수4(상금 각 100만원) 장려상6(상금 각50만원), 특별상1(상금 30만원) 전국 260만 명의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1만 6000명이 경북에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초등학생은 7000명, 중학생 2600명, 고등학생 1000명으로 본격적인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했다. 이에, 경북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두 개의 문화와 언어를 접하는 강점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기금을 활용해 온라인을 활용

한 이중언어 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학습부진을 막기 위해 전문교사를 통해 온라인 학습지원과 대학생 멘토링을 병행하고 있다. 앞으로 해외여행이 가능하게 되면 국내 이중언어 캠프 참가자 중 우수학생들을 선발해 현지 대학과 연계해 해외 집중캠프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유정근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 직무대리는 "이중언어라는 강력한 강점을 발판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앞으로 세계화 시대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도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위한 도움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대구 중구, 2021 제32회 동성로 메타버스 축제

## 3차원 가상세계 '메타버스'를 활용한 축제 개최



2021 동성로축제가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10월15일부터 17일까지 언택트 온라인 축제로 개최된다. 올해는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metaverse)'를 축제의 도입하여 동성로의 이미지를 반영한 메타버스 공간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새로운 개념의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주요프로그램은 '비대면 메타버스 오디션 파워M', '비대면 메타버스 패션쇼', '비대면 라이브커머스', '비대면 메타버스 축하공연', '동성로30년 발전사'의 3차원 가상세계를 배경으로 사진 촬영한 영상콘텐츠로 축제 기간 유튜브 '대구 동성로 축제' 채널을 통해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으며, 동성로 야외무대에 LED화면을 설치하여 지나가는 누구나 축제영상을 보고 온라인 참여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비대면 메타버스 오디션 파워M은 매년 동성로 야외무대에서 펼쳐졌던 동성로가요제를 노래, 춤, 연기로 분야를 확대하고 예선·본선을 개최하여 최종 3팀을 선정한다. 15세이상 28세미만 누구나 참가신청할 수 있으며 9월30일까지 동성로축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라이브커머스는 동성로 패션뷰티, 동성로 먹거리, 동성로 체험즐거거리 3가지 주제로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여 동성로 KSP 등록 매장 등 동성로 일원 상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성로 쇼핑과 관광을 한번에 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에서 만든 KSP와 연계한 메타버스 경품권 행사를 통해 동성로 상권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중이다. KSP에서는 스마트 쇼핑 관광을 위

한 동성로 할인패스권으로 원하는 시설(상점)을 선택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메타버스 개념 도입으로 동성로에 새로운 방식의 경제,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온라인에서 동성로거리 일원 매장의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커머스 콘텐츠를 통해 동성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주력하였다는 점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새로운 축제의 시도가 대구 중구 동성로에 이목이 집중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동성로축제의 다양한 콘텐츠를 집에서 편안하게 영상으로 즐기면서 마음의 위안을 삼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남궁영기기자

# 경주시, '2021년 경주시 청년주간-청년의 하루' 행사 진행



이달 10일~23일까지 청년의 날 기념 행사 열려

이달 1일~12일까지 진행된 '청년의 하루'는 청년들의 다양한 일상을 활용한 사진 공모전으로 진행됐다. 루프탑 영화제를 통해 지난 10일 전찬영 영화감독과의 만남이 이뤄지는 등 청년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자리가 만들어졌다. '가볼까' 프로그램은 청년 신 골든창업특구 투어와 청년점포 상품 구입 등 이벤트로 진행되고 있다. 30여개 청년점포에서 1만원 이상 구매 시 추첨을 통해 스마트 워치, 무선 이어폰, 드라이기, 캠핑 용품 등 경품이 제공된다. 오는 27일 청년센터에서 추첨이 진행되며 '경주시 청년센터'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박옥순 경주시 일자리창출과장은 "청년의 날을 축하하며 행사를 통해 청년들이 삶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청년 기업들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 프로그램의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청년센터 홈페이지 또는 인스타그램을 참고하면 된다. 한반식기자

# 상주 사과, 경북 직거래장터 품평회 대상 수상

상주시 화남면의 사과농가가 출품한 사과가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 품평회에서 대상(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대상 수상자는 최원수씨로, 당도가 높고 빛깔이 좋은 사과(홍로)를 출품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다. 2021년도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대구시 두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에서 열렸다. 상주시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참가했다. 최씨의 수상으로 상주시 우수농산물 홍보를 물론 대구경북지역 소비자와의 직거래 유통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남광우 사)한국농업경영인 상주시연합회 회장은 "경상북도 각 지역의 우수 농산물이 출품된 가운데 상주시 농산물이 대상을 받은 것은 한 명의 농업인이 아니라 그동안 이상기후, 잦은 장마 등 고난을 이겨내며 농업을 책임져 온 상주시의 모든 농업인에게 주는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과 외에 상주 농산물이 소비자에게 각광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경상북도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행사는 소비자에게 우리 농산물을 홍보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열렸다. 시상은 대상 2명, 금상 2명, 은상 2명, 동상 2명, 장려상 2명 등이다. 한반식기자

# 배지숙 의원, 굿네이버스 '100인의 꿈지원단'에 위촉

## 대구지역내 전문직업인 100인, 취약계층 아동 지원활동 펼칠 계획

대구광역시의회 배지숙 의원(문화복지위원회, 달서구6)이 9월 10일 지역 내 취약계층 아동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대구서부지부에서 추진 중인 '100인의 꿈지원단'에 위촉되어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활발한 활동을 약속했다. 배지숙 의원은 "대구의 미래 아동들의 꿈을 힘차게 응원한다"라고 적은 응원 메시지를 전하면서, "의정활동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라며, "꿈 지원단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 등 많은 후원단체들과 함께 지역사

회의 좋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굿네이버스 대구서부지부에서 진행하는 '100인의 꿈지원단'은 대구지역내 전문직업인 100인을 꿈지원단으로 위촉해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이 미래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하도록 응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에 위촉되는 '100인의 꿈지원단'은 아동에게 꿈 응원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 내에서 선정된 20명의 저소득 가정 아동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박종채기자



# 대구 수성구-미8군 제19지원사령부, 글로벌 교육협력 추진



Chris Brookie 대령)과 교육·문화, 코로나 의료대응 현황 등에 대한 협력과 교류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만찬에는 수성구청 교육지원과,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관계자가, 미군 지원사령부에서는 의무실장이 동석했다. 참석자들은 양 기관 교육·문화·의료 분야에 관한 협력과 교류를 위해 의견을 나눴다. 수성구와 미8군 제19지원사령부는 향후 실무 차원의 상호 지원과 실질적인 협조체제를 가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장동호기자

# 행복안동 방구석 평생학습축제 개최

'행복안동 방구석 평생학습축제'가 지난 11~12일 안동시 평생학습원에서 줌(ZOOM)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되었다. 이번 평생학습축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활동의 제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심리적 우울감을 학습 활동을 통해 해소하고자 기획되었으며, 안동시 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권기탁)의 주관 하에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되었다. 가족을 대상으로 한 • 마카롱 만들기 키트, 성인 대상의 • 토피어리 액자 만들기, 중·고등학생을 위한 • FM 라디오 만들기 키트, 그리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 콘텐서 비행기 만들기 키트 등 4종류의 키트를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안동시 평생학습원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9월 9일 ~ 10일 음악분수 옆 강변주차장에서 비대면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교통에 차질이 없도록 해당 학습 키트들을 총 650명의 신청자에 한하여 배부하였다. 온라인 줌(ZOOM) 강의를 위하여 안동시 평생학습원 내에 설치한 방구석 평생학습축제 스튜디오에서 지난 주말 11일에는 마카롱 만들기과 콘텐서 비행기 만들기 강의를 진행하였으



며 12일에는 토피어리 액자 만들기과 FM 라디오 만들기 강의를 성황리에 마쳤다. 14일부터는 읍면지역의 문화교실인 '찾아가는 한글배달교실'에서 수업을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김병진 평생교육과장은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평생학습축제로 찾아볼게 되었지만 내년에는 마스크 없이 축제장에서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축제가 될 수 있기를 고대한다"라며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내자는 뜻을 전했다. 김세기기자



# 우리소리 대가들 스승 기린 산청 기산국악제 성료 김해시 "추석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믿고 맡기세요"

제자 박범훈·김성녀·김덕수... 장사익·박혜리나 등

우리 소리 대가들이 스승 기린 박현봉 선생을 기리는 마음으로 꾸민 '제15회 기산국악제전'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산청군은 지난 12일 저녁 단성면 남사예담촌 기산국악당에서 열린 기산국악제전 국악한마당이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막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산국악제전 국악한마당에는 기산 박현봉 선생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거나 선생이 동료 국악인들과 함께 설립한 국악예술학교(현재의 국립전통예술평화고)에서 수학한 우리 소리의 대가들이 무대에 올랐다.

'기산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연은 박범훈 동국대 석좌교수(불교음악원 원장)가 중앙국악관현악단의 지휘와 이번 무대를 위한 창작 초연곡과 모든 곡의 작곡을 맡았다.

첫 공연은 박범훈 선생이 작곡한 기산잔가 '누구의 것이랄 것도 없는'을 국악인 김성녀 선생이 초연했다. 이후 최근 '미스트롯2' 경연대회 등에서 여러 가수들이 부르며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배 띄워라(박범훈 작곡)'가 이어졌다.



이어 박범훈 선생의 딸이자 현재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교수인 박혜리가 중앙국악관현악단과 함께 가야금 협주곡 '경토리'를 연주했다.

다음무대는 사물놀이 창시자 김덕수의 사물놀이팀이 국악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신모듬'을 선보이며 공연에 열기를 더했다.

소리꾼 장사익씨는 김흥신 선생이 기산 박현봉을 위해 쓴 시에 박범

훈 선생이 작곡한 '기산처럼 살라네요' 초연곡을 노래했다. 이와 함께 SBS TV 드라마 임궽정을 통해 널리 알려진 '티끌 같은 세상 이슬 같은 인생(박범훈 작곡)'과 그의 대표곡 '찜레꽃'이 이어졌다.

공연의 대미는 故 홍윤식 선생이 작사를 하고 박범훈 선생이 작곡한 '산청 아리랑'이 장식했다. 모든 출연진은 산청아리랑과 함께 박현봉 선생

이 작사한 '국악의 노래'를 부르며 공연의 막을 내렸다.

이날 출연진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기산 박현봉 선생님과의 인연을 바탕으로 선생님의 가르침을 묵묵히 실천해 온 국악인들"이라며 "앞으로 기산국악제전을 계기로 산청이 우리 민족음악의 중심지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경남은 박현봉 선생께서 힘써 농악부문 최초로 국가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진주·삼천포농악을 비롯해 통영오광대, 승전무, 가산오광대 등 다채로운 중요무형문화재가 있다"며 "현재 경남에는 도립국악원이 없다고 들었다. 기산국악당과 기산국악제전을 중심으로 도립국악원이 설립·운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산국악제전 국악한마당 공연은 서경방송을 통해 오는 21일 오전 10시 방영될 예정이다. 이후 연휴기간 중에도 재방송이 진행된다. 또 국악방송을 통해서도 공연을 확인할 수 있다.



김해시는 추석 연휴에도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19~22일)는 휴일 요금이 아닌 평일 요금을 적용해 코로나19로 힘든 가계 부담을 덜어준다.

시는 현재 연휴 기간 돌봄서비스 예약이 80건 이상이라며 추석 연휴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양육 공백이 발생한 만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요금은 시간당 1만400원이며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15~85%(1,506원~8,534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연간 840시간, 영아종합서비스의 경우 월 60~200시간 이내까지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김해시의 경우 186명의 아이돌보미가 월 7,000건 이상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전 공휴일에는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되어 시간제서비스의 경우 1만5,060원(정부지원금액 1,506원~8,534원 포함)의 요금이 부과되었으나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평일

요금이 적용된다.

또 이달부터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의 경우 이용요금의 90%(9,036원)까지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 부모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여야 하며, 소득판정 시 '가형'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3인가구 기준 월 평균 소득 298만 7,963원 이하,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365만 7,218원 이하를 받으면 '가형' 판정을 받을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소득 유형 판정을 받으면 된다.

저소득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확대는 저소득 청소년 부모가 코로나19와 실업 등 어려움에 많이 노출되고 양육기술 또한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아이돌보미로부터 아동 양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터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허성근 시장은 "추석 연휴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정과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이 큰 청소년 부모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병철/기자

최광용/기자

## 창원시, 북면 감계에 우리동네 힐링 숲길 조성 추진

창원시는 북면 감계 지역에 '우리동네 힐링 숲길'을 조성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동네 힐링 숲길은 신도시 대단위 아파트 주변에 숲길을 조성해 지역민에게 건강 증진과 산림휴양 편의를 제공하는 등산로이다.

이번 사업은 감계 힐스테이트아파트(4차) 뒤 ~ 감계 유니시티아파트 예정지까지 숲길 1.07km 개설하고 계곡부에 목교 3개소, 경사지에는 야

자매트 등을 설치하며, 이정표, 의자, 안내판 등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힐링 숲길(등산로)을 조성할 예정이다.

김동규 산림휴양과장은 "도심 내 숲길 조성으로 더 많은 주민이 안전하게 등산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주민의 건강과 힐링을 위해 다양한 산림문화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남궁영기/기자

## 서춘수 함양군수,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서 군민과 소통행보



2021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개최 연계, 인정을 할력 넘치는 전통시장 만들기 노력

함양군 서춘수 군수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용객을 격려하는 현장 소통행보를 시작하였다.

특히, 서 군수는 지난 10일 개막한 2021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 다양한 일점들을 소화하는 바쁜 와중에도 12일 지리산 함양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 및 소비자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며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날 전통시장을 찾은 서 군수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어려움과 정부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인들의 건의사항 등 상인들과 소비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노고를 위로하는 등 민생행보를 펼쳤다.

아울러 엑스포 행사장에 이어 전통시장을 찾은 관광객에게 감사의

인사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홍보도 잊지 않았다.

서춘수 군수는 "2021 함양산삼향 노화엑스포 개최를 시작으로 우리 전통시장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엑스포와 연계하여 관광객들이 전통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등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책의 일환으로 5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을 돌려주는 행사를 9월 17일까지 실시하여 추석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의 소비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놓인 지역주민과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지류형 함양사랑상품권 특별할인에 더해 모바일 함양사랑상품권까지 10% 특별할인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 해소에 그 효과를 특별히 보고 있다.

장병철/기자

## 경남도,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 개최

9월 13일, 개회식·기조강연·성과발표 등 온라인 진행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충북 플랫폼, 울산·경남 플랫폼, 광주·전남 플랫폼, 대전·세종·충남 플랫폼이 공동 주관하는 제1회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성과포럼이 13일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축하영상과 유튜브 방송, 온라인 전시관 등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성과포럼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류장수 원장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1차년도 우수플랫폼(충북플랫폼)성과 발표, 플랫폼별 2022년도 사업추진계획 소개, '공유대학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자유토론, 핵심분야별 성과발표순으로 진행됐다.

울산·경남 지역인재혁신플랫폼에서는 usg 공유대학 학사구조, 교과과정,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강의 생성도구·실감형 콘텐츠·온라인 코딩 플랫폼 등 시스템 기반 구축 성과와 사업단별 소과제 성과·우수사례에 대해 발표했다.

연중 상시 운영될 예정이며 각 지역혁신플랫폼 누리집 배너를 통해 접속·이용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성과포럼을 통해 울산·경남 지역인재혁신플랫폼 사업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성공적



인 공유대학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 usg 공유대학은 지역주도로 지역인재를 키워 지역발전 선순환 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지난 4월 usg 1기 학생 300명을 선발하여 9월부터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울산·경남 지역혁신 플랫폼으로 전환하여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오는 11월에는 usg 2기 학생 500명으로 확대 선발할 예정이다.

최광용/기자

## 창원시, CES 참가 지원으로 스타트업 해외시장진출 돕는다

창원산업진흥원, CES2022 참가 희망기업 24일까지 모집

창원시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CES) 지원 시책'의 사후관리를 위해 역대 참가 기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생산과 수출이 크게 성장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해 매년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며, 161개국, 4500개 업체 참여, 18만명 참관 등 세계 최대규모의 가전·IT제품 전시회다.

이번 점검은 2019년부터 2021년 까지 창원시가 CES 참가를 지원한 14개 기업체에 대해 재무현황과 생산규모, 고용현황, CES 참가 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진행됐다. 이외에도 참여업체들의 주요 성과 공유를 통해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기술협력을 모색했다.

점검결과 14개 업체들은 연간 매출액, 수출액, 생산량이 증가하는 등 활발한 기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ood Life를 비롯한 5개 업체가 자본금이 증가했으며, 에덴록스, 세이프드, ㈜제이투씨 등이 미국, 홍콩, 독일의 해외시장으로 진출하여 수출 성과를 이뤘다. 또한, CTNS를 비롯한 8개사에서 48명의 고용이 증가하였고 4개사의 사업장 규모가 확대 되는 등 기업 성장세를 이어가는 양상을 나타냈다.

CES 참가에 여부 조사에서는 14



개사 중 10개사가 해외 시장 판로개척과 홍보 기회 마련을 위해 재참여를 희망했다. 이외에 신기술·신시장에 대한 스타트업의 선진시장 진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전시 참가지원 사업 확대를 요청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창원시 관내 스타트업들이 CES라는 세계 무대에서 기술력과 경쟁력을 입증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고 글로벌 시장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기를 바라며, 우리시는 스타트업 지원사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2019년부터 매년 관내 우수기업 스타트업·벤처기업들의 CES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0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CES2022 참가 희망 기업을 9.24까지 추가모집 중이며, 평가를 통해 선발된 기업에게 전시 부스제공 및 장치비, 왕복 항공비, 물류비 등을 지원한다.

모집과 관련한 사항은 창원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궁영기/기자

# 장성군 “어르신, 추석 전에 효도권 드릴게요”



**목욕·이미용권 통합... 명절 전 앞당겨 배부키로**

장성군이 10월 지급 예정이었던 4분기 효도권을 추석 연휴 시작 전에 조기 배부한다. 고령 주민의 생활은 물론 지역 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만 65세 이상 주민에게 목욕권과 이미용권을 통합한 효도권을 1인당 분기별로 4만 5000원씩, 연간 18만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1만 2700여 명으로, 지역 내 목욕·이미용업소 103개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애초 지급 기간은 오는 10월로 계획

되어 있었으나, 장성군은 추석 연휴 이전에 일찌감치 배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을 시작했다. 현재 읍·면 단위로 배부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명절을 맞아 어르신들의 목욕·이미용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면서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효도권은 노인 복지 증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하나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이미용 수요를 장성 내부로 집중시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준다.

오홍권/기자

# 곡성군, 추석 대비 교통안전 및 방역수칙 준수 캠페인 열어



곡성군이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교통안전 문화운동 및 방역수칙 준수 운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곡성버스터미널을 비롯해 전통시장 3개소 등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진행됐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교통사고 및 교통 안전문화 실태에 대해 알리고, 교통안전 문화 향상을 위해 필수 교통안전

수칙 준수 등을 홍보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수칙 조정사항을 안내했다. 특히 추석 연휴 타 지역 방문 자제, 개인 방역 수칙 준수 당부 등 코로나 19 예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호소했다.

군 관계자는 “귀성길 교통사고 위험구간과 상습 무질서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 안전운전과 방어운전을 습관화해 안전하고 즐겁게 고향을 방문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또한 “추석 연휴를 맞아 집합금지 규정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군민들께서는 내 고향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이웃이나 친구와의 모임은 자제해 주시고, 백신접종과 개인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최상홍/기자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민의 날’ 비대면 기념식 성료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이 지난 10일 수완문화체육센터 공연장에서 수완동 개동 11주년을 기념해 수완동민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현장 인원을 최소화하고 온라인 중계를 병행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됐다.

주민 실무추진위원회가 기획한 축하 무대와 유공주민 표창 및 수완동민의 상 수여, 장학금 전달 등과 함께 주민총회도 진행됐다. ‘더 많은 참여, 함께 만드는 바람’이라는 부제로 열린 주민총회에서 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의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박대규 수완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도 수완동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주민들에 감사하다”며 “인구 8만 대동에 걸맞은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선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뒷받침할 문화·체육 복합 공



간인 수완문화체육센터의 개관식도 열렸다. 주민의 숙원이었던 수완문화체육센터는 농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공연장 등 다양한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현재 다목적체육실, 체력단련장 등 일부 시설이 운영중으로, 향후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전체 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김덕윤/기자

# 전라남도 김영록지사, 동부권 코로나 긴급대책 논의

11일 순천시청... 공동 대응반 운영·학교 안팎 방역 강화키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11일 순천시청 소회의실에서 ‘동부권 코로나 19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최근 확산세가 지속되는 동부권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체계를 다잡았다.

이날 긴급 대책 회의에는 여수·순천·광양 3개시 단체장,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부권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하고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들은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전남도-동부권 3개시 공동 대응반’을 운영키로 했다. 전남도-여수·순천·광양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확진자 정보 상시 공유 및 확진자 발생시 공동 역학조사 수행 등으로 지역 간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 전파를 사전 차단할 방침이다.

또 최근 학교 내 집단감염 발생과



관련해 학교 안팎 방역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교육지원청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내 방역수칙 준수, 동선 최소화, 교실 환기 등 학교 내 방역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또한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PC방, 스티디룸, 학원, 교습소 등 학교 밖 시설 방

역 점검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교육청과도 학교 방역 대책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동부권 환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생활치료센터 추가 지정도 추진한다. 강진·나주 생활치료센터에 이어 동부권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으로써 동부권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현재 공공기관 시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 지정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외에도 ▲가족 간 감염 차단을 위한 자가격리시설 마련 및 동거가족 방역관리 ▲대기업·협력업체 등 산업단지 내 선제검사를 강화 ▲임시 선별검사소 활용 선제검사 독려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는데다 추석을 앞두고 확산세가 이어질 수 있어 상황이 중차대하다”며 “앞서 발생한 감염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숨겨진 위험요인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김덕윤/기자

# 강진군, 제21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수상작 발표



강진군 고려청자박물관이 지난 10일 제49회 강진청자축제 기획행사로 마련된 제21회 대한민국 청자공모전

입상작이 발표했다.

고려청자박물관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부문별 전문가 5명을 위촉해 예술성, 상품성, 독창성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실시했으며, 공모 주제를 “飲(마실 음)”으로 정하고 관련한 모든 청자 작품을 접수 받고 심사했다.

특히, 이번 공모전에서는 전통과 디자인의 경계에 있는 실용성을 겸비한 작품 출품이 증가하는 경향을 반영해 전통 부문과 디자인 부문으로 나뉘었던 공모 분야를 통합했다.

수상작은 ▲대상 강광목 작가의 ‘춘추추동’ ▲최우수상 유정현 작가

마시는 모든 것(飲)에 관한 모든 것

▲우수상 남정택 작가, 이승표 작가 작품이다. 이밖에 특선은 6점, 입선 20점을 포함해 30점의 수상작이 선정됐다.

대상은 문체부장관 상장과 부상으로 상금 1천만 원, 최우수상은 전라남도지사 상장과 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며 강진청자축제 기간에 시상식을 개최한다. 입상작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고려청자 디지털박물관 2층 전시실에 전시된

다.심사위원장인 김철우 교수(전남대학교)는 “우선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출품하기 위해 애써주신 작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뛰어난 작품들이 많이 출품돼 전국 유일의 청자공모전으로서 그 위상이 여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모전 방식이 바뀌면 앞으로 생활용기로서의 상품성과 실용성을 가진 작품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기대한다”며 총괄 심사평을 전했다.

김장길/기자

# 여수시, “행복한 동네 주민이 만든다”...마을복지계획단 발족

국동·문수동 시범동 선정, 10일 문수동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 및 워크숍 열려



여수시에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복지수요로 행정의 힘이 닿지 못하는 곳을 찾아 주민 스스로가 복지 문제를 찾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마을복지계획단’을 발족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날 26일 국동마을

복지계획단 첫 발족에 이어 10일 문수동 마을복지계획단 발대식과 워크숍을 열었다.

“마을복지계획단”은 마을의 주인인 주민이 마을에 필요한 복지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논의하고 계획하여 마을 주민의 ‘어려운 복지문제’를 ‘나눔’으로 실행하고 주민 스스로가 마을복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중심의 복지공동체이다.

이날 발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며, ‘마을복지계획단’ 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김하생 소장(전통문화콘텐츠연구소)과 함께 마을의 문제를 찾고 함께 토론회를 하며 제1차 워크숍을 진행했다.

문수동은 지난 7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직능단체회원, 다양한 복지종사자, 주민 등을 공개모집해 30명의 마을복지계획단을 구성했고

며, 나머지 25개 읍면동도 자체적으로 발대식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국동과 문수동은 올해 12월 말까지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지역주민 욕구조사,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해 지역의 과제를 발굴하고, 해결을 위한 실행 방법을 담은 마을복지계획을 수립해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이웃 분들이 나서서 복지사각지대가 없게끔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는 여수의 미래가 잘 그려질 수 있게 활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수동 김석호 마을복지계획단장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마을의 복지 의제를 깊이 고민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일/기자

광주광역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회적기업 육성”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0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두 번째 일정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인 (주)멘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파악한 뒤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지역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주)멘퍼스는 사무용 가구 및 피트니스 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청년일자리 제공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주)멘퍼스 종사자 및 사회적경제 당사자, 조직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간담회에서 이용섭 시장은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 회사 조석 대표는 “현재 신규 인증 사회적기업 수는 증가 추세지만 지원이 종료되는 5년 후 자립해 안정적인 지속 성장하는 사회적기업이 적다”면서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기존 사회적기업이 튼튼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를 위한 시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가치와 공동체 이익을 추구하는 점에서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과도 많이 닮았다”며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주)멘퍼스의 공장동 생산시설 라인을 방문해 근무자의 작업환경을 살펴보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김덕윤/기자

# 영광군, 추석 명절 앞두고 '청렴캠페인' 실시

함께하는 청렴문화, 부패 없는 청렴영광

영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3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캠페인’을 펼쳤다.

공무원노동조합과 감사부서가 함께한 이번 캠페인은 부패 발생 개인성이 높아지는 명절을 앞두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는 취지에서 실시됐다.

서로 마음만 주고 받자는 의미로 ‘정(情)’을 담은 초코파이와 공무원행동강령 및 부정부패 추방 실천 내용이 담긴 전단지 등을 함께 배부하였다. ‘함께하는 청렴문화’, ‘부패 없는 청렴영광’을 외치며 청렴에 대한 적극

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또한 감사부서에서는 다음달 1일까지 명절을 전후하여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자감찰활동을 통해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공직자들의 복부지급 해이, 직무태만, 금품·향응 수수, 음주근절, 소극행정 등을 방지하고 공직자감 확립에도 힘을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자 스스로가 청렴 실천을 생활화하여 청렴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청렴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신뢰받는 영광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 전주시 도서관 정책, 매니페스토 대회 '최우수'

## 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

'책의 도시'를 선포한 전주시의 창의적인 도서관 정책이 전국 최우수 정책으로 인정을 받았다.

시는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온라인으로 개최한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도서관도시 정책으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전국 159개 기초자치단체의 우수 정책사례를 발굴, 확산시키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방 민주주의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시는 총 376개의 공모작 중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209개 사례를 놓고 7개 분야에서 경합이 이뤄진 이번 대회에서 '마음의 양식을 넘어 책이 삶이 되는 도서관도시 전주'라는 주제로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다.

도서관도시 정책은 민선7기 김승수 전주시장의 핵심 정책 공약이자 책을 기반으로 한 인문관광 도시를 지향하는 프로젝트다.



시는 곳곳에 시립도서관, 여행자도서관, 예술전문도서관 등 특화도서관을 조성하고 딱딱한 기존 도서관들이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면서 자유롭게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으로 변신시킨 점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의 도시'로 나아가 갈 것을 선포한 시는 전국 최고의 책

의 도시를 목표로 삼아 △삶이 중심이 되는 도서관 △책이 만드는 시민 △모두가 누리는 독서 문화 △가보고 싶은 책 여행도시 △책의 거리 등 5개 방향을 중심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주시 도서관은 지난해에만 △문화체육관광부의 2020 제15회 대한민국공간문화대상 대통령상(우주

로 1216) △국무총리상(우주로 1216)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장애인 도서배달 서비스 우수기관(송전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의 '길 위의 인문학' 우수기관(서신도서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 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이 아니라 이웃과 만나는 공동체의 거점이자 우리 아이들의 상상력과 창의력, 모험심을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도시 곳곳에 더욱 다양한 특화도서관을 조성하는 등 책을 통해 삶을 바꾸고, 삶이 다시 책이 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열린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정원이 삶이 되고 문화가 되어 산업을 키워내는 정원문화도시 전주' 정책으로 기후환경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김승일기자

# 백제왕도 익산역사여행비대면 관광마케팅 활성화

## 11월까지 자유롭게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투어 등 이벤트 참여

익산시가 '마주치지 않고 자유롭게'라는 컨셉으로 백제 역사문화 관광지를 즐기는 비대면 관광마케팅 활성화에 나섰다.

시는 익산지역에 있는 백제유적지를 비롯한 주요 여행지를 방문해 스탬프를 찍는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를 3개월간 실시한다.

시는 코로나19상황을 고려해 관광객들이 밀집되는 이벤트를 피하면서도 관광객들에게 익산 지역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를 소개하고 익산 여행의 재미와 색다른 추억을 선사하기 위해 역사여행 속 보물찾기, '스탬프 투어' 등 이벤트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 이벤트는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며 스탬프 책자에 스탬프를 다 찍은 후 이를 익산시 홈페이지 내 문화관광 코너의 스탬프투어 기념품 신청 게시판에 인증할 시 스탬프 인증 개수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스탬프 투어 인증 이벤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광객은 각 지점에 설치된 스탬프 인증함에서 자유롭게 스탬프



책자를 꺼내 스탬프를 찍으면 된다. 스탬프 인증함은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제석사지, 고도리석불입상, 서동생가터, 익산쌍릉, 송림사, 함라3부작 집 일원, 임절리고분, 교도소세트장, 원불교익산성지, 나비위성당, 두동교회, 심곡사, 구 익옥수리조합(문화재단), 춘포역사, 보석박물관, 서동공원(마한관), 가람이별기생가, 익산역 등 역사관광명소의 총 20개소에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이 역사관광명소에서 휴식을 취하고 더불어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선수기자

## 강진군 가우도 모노레일·출렁다리 준공식 개최



강진군은 지난 10일 이승욱 군수, 위성식 군의장을 비롯해 군의원 및 유관기관 단체장, 군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진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며 개최,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개통선언, 기념식수 식재 순으로 진행됐다. 가우도 출렁다리는 사업비 42억 원을 투입해 1.8m의 폭과 150m의 길이, 높이 15m로 설치해 지난 7월 15일 개통했으며, 천혜의 자연경관을 자랑하는 가우도 둘레길 코스와 연계되어 짜릿함과 재미를 느낄 수 있다.

모노레일은 사업비 40억 원을 투입

했으며 교통약자들의 접근성과 이동편의를 위해 가우도에서부터 섬 정상에 자리한 청자타워까지 이용할 수 있다. 길이는 264m, 차량 30인승 2대로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청자타워까지 올라가는데 5분 정도 소요된다.

관광객 김영필(67)씨는 "이전에 가우도를 방문했을 때는 다리가 아파 정상까지 올라갈 수 없어 아쉬웠다"며 "모노레일이 설치돼 가파른 정상까지 편하게 올라갈 수 있고, 가우도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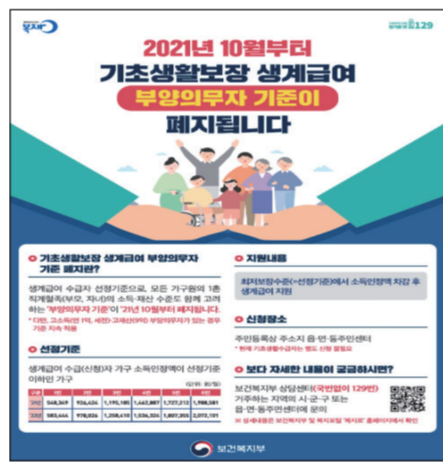
한편, 가우도 모노레일은 지난 8월 17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범운영을 마치고, 9월 1일부터 정상 운영 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성인 기준 2천 원이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많은 이들의 관심과 협조로 가우도 모노레일과 출렁다리를 성공적으로 준공하고 개통할 수 있었다"며 "가우도의 뛰어난 자연경관과 다양한 체험 거리를 연계해 가우도가 서남해안 대표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김장길기자

## 여수시,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10월부터 적용,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행정력 집중할 터"



여수시가 오는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에 파악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해 왔지만, 오는 10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정부는 당초 2022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 보장 강화를 위해 석 달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인 가구가 해당되며,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해 지원한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연 1억 원의 고소득, 고재산(9억)의 경우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금번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로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SNS, 포스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생계급여 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여수시 사회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동일기자

## 광주광역시 서구, 어린이 교통안전교실 운영



광주 서구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어 어린이와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찾아가는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은 지난해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위반 단속기준이 강화되었으나, 여전히 어린이 교통사고

가 줄어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이 만연하고 있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향상하기 위해 서구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사단법인 어린이 안전학교 소속의 안전지도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 교통안전 표지판 익히기 ▲ 교통사고 예방법 ▲ 시청각 교육 등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조기에 스스로 안전한 교통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관내 초등학교 30학급을 방문하여 아이들의 눈높이 맞는 교육을 실시하고, 그 호응을 보아 사업을 확대하여 앞으로도 어린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윤기자

Artificial Intelligence

# 교육도시 오산

# 세종시, “익숙하면서도 낯선 마을공동체 얘기 나눠요” 충청남도, “청년 구직경비건강 관리비 지원 추진”

14일 공감 라이브 토닥토닥 들어드림 행사... 유튜브 실시간 중계



세종특별자치시가 오는 14일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공감 라이브 토닥토닥 들어드림’ 9월 행사로, 익숙하면서도 낯선 세종시 마을공동체 활동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닥토닥 들어드림은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살아가는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격려와 응원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지난해 12월과 4월, 5월 등 총 세 차례 진행했다.

이번 9월 행사에서는 ‘같이의 가치’를 주제로 전의향교문화대학, 세종청년네트워크 등 관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마을공동체를 소개하고 시민 삶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특히 전의향교문화대학은 전의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높이고 노

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조창 대회와 전통 다례체험, 시화체험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소개한다.

세종 최초의 청년 공동체인 세종청년네트워크는 ‘우리가 노는 물은 우리가 만든다’는 가치 아래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소그룹과 활동 계획, 참여 청년들의 각오를 차례로 들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어서는 ‘세종 식스센스’, ‘우리 공동체를 소개합니다’라는 이름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다양한 마을공동체가 출연해 활동 성과와 계획을 들어보는 코너도 마련돼 있다.

이날 마지막 순서 ‘뭇 다한 이야기, 속풀이 시간’은 참여 시민과 마을공동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진행된다.

각 코너 사이사이에는 행복한 마을 놀이마당의 마을공연과 세종챔버 뮤직 소사이어티의 밴드 공연이 펼쳐져 참여 시민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화상회의 앱 ‘Zoom’을 통해 진행되며, 세종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하며 댓글로 소통에 참여할 수 있다.

김병호 대변인은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같이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세종의 마을공동체를 알아보고 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9월 토닥토닥 들어드림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은기자



양승조 지사, ‘청년의 날 기념행사’서 내년 ‘3대 청년사업’ 밝혀

충남도가 내년 청년들에 대한 구직비용과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나선다.

양승조 지사는 11일 제2회 충남 청년의 날 기념행사를 통해 내년 △충남 청년 희망카드 △청년 입학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공모사업 등 3대 청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년들을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충남내포혁신플랫폼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마련한 이날 행사는 양 지사와 청년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시상, 청년 희망 메시지 발표, 청년공동체 활동 사례 발표, 토크콘서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충남은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에게 삶의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라며 “구직을 준비하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구직 준비 경비와 문화 활동, 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 입학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도내 청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49.8%가 주택 임차 및 매매비용 때문에 빚을지고 있었다”라며 “충남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낮추고 주거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준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진 중인 청년들에 대한 입학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과 대출 가능 범위를 확대하고, 개인별 이자 부담률은 줄여 충남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거비용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청년들의 꿈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모 사업은 경제·일자리, 사회·복지, 문화·관광, 농업·농촌, 능력개발 등 5개 분야에 걸쳐 추진한다.

청년 역량을 키우고, 자신이 구상하고 설계 중인 사업에 대해 창업 또는 기술개발을 통해 미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 양 지사의 의지다.

양 지사는 앞서 ‘두 자녀 무료 아파트’로 불리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꿈비체’를 소개하며 “충남 꿈비체는 ‘열린’, ‘빛 투’, ‘벼락 거지’ 등 주거 불안에 떨고,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구직 준비 경비와 문화 활동, 건강관리 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이나마 가벼워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자리 창출과 맞춤형 취업 지원 △주거비용 부담 완화 및 주거여건 개선 △미래인재 육성 및 역량 강화 △복지 및 문화 혜택을 통한 삶의 수준 향상 △정책 참여율 제고 등 도의 올해 청년 정책을 설명하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정근기자

## 대전시, 과학을 주제로 볼거리, 즐길거리를 찾습니다.

대덕특구 탐방기, 생활속에 과학 체험기 등, 총 상금 320만 원, 10월 31일 마감

대전시가 과학수도 대전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제7회 대전광역시 블로그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과학수도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과학, 대덕특구 탐방기, 신기술(AI, 메타버스, VR, IoT, 빅데이터 등) 체험기, 대전사이언스페스티벌 체험기 등을 찾는다.

글과 사진, 동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이 포함된 자유 형식의 블로그 콘텐츠를 제작하여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격에 제한은 없으며 1인당 1작품만 공모할 수 있다.

대전시 공식블로그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후 10월 31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네이버폼을 이용하면 된다.

최우수(100만 원/1명), 우수(60만 원/2명), 장려(20만 원/3명), 입선(10만 원/4명) 등 총 10명의 수상작을 선정해 대전시장 상장과 상금(총

320만 원)을 수여한다.

공모결과는 콘텐츠 확산성, 파급성, 완성도, 창의성, 활용성 등을 심사하여, 11월 30일 공식블로그를 통해 공개된다.

대전시 이용균 홍보담당관은 “이번 공모전 개최로 과학수도 대전에서 과학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룬 콘텐츠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원주시, 어린이 및 임신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실시



원주시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합병증 위험이 높은 어린이(생후 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와 임신부를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9월 14일부터 68개 위탁의료기관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생애 첫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 어린이와 임신부는 9월 14일부터, 그 외 어린이는 10월 14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은 생후 6개월에서 만 9세 미만 어린이는 2회 접종(4주 간격)을, 과거 2회 접종력이 있는 어린이는 1회 접종을 지원한다.

이미나 원주시 보건소장은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기에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안전한 접종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 관내 식품인 경영실무 가이드북 제작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관내 식품제조 기업의 기업경영 및 제품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영실무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책에서는 △식품 인허가 △제조시설(HACCP, GMP) 인증 △식품 품질 및 안전관리 △수출 가이드 △식품 제조 위생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수록했다.

진흥원은 품질관리 지원 사업 협약을 체결한 관내 200여 개 식품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진흥원에 방문해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또한 오는 11월 개편하는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김영수 원장은 “이번 가이드북은 현장 적용 가능한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다”며 “식품제조 기업인들의 이해도 증진과 종사자들의 경영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금산인삼약초산업진흥원은 금산 식품제조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인삼·약초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정화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 청년들과 통·하다!

2021 대전청년주간 공감토크쇼 출연, 진솔한 이야기 나눠

허태정 대전시장은 11일 ‘2021 대전청년주간’의 청년담(談)다(多)에 출연하여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누며 요즘 청년들을 이해하고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담(談)다(多)’는 청년들의 관심 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들여다보며 공감을 통해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의미로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11일 오후 2시 갈마동 청춘두드루에서 대전청년주간 유튜브 채널 등을 온라인 생중계되어 시청자와 만났다.

이날 행사에는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 김진한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 등 지역의 청년들이 함께 자리해 MZ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과 삶에 대한 가치관, 직업과 직장, 워라벨 등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참여한 청년들은 요즘 젊은이들의 재기발달함과 자유로운 모습을 뽐내

면서 한편으로는 본인들의 추구하는 진정한 성공과 행복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생각을 드러내며 눈길을 끌었다.

허태정 시장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본인의 소확행(작고 소중한 행복), 청년시절 경험담 등을 공유하면서 진심어린 이해와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허태정 시장은 토크에 앞서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맞추기 코너에서 유행단어를 적절 맞추며 “젊은 감각”을 뽐냈다는 후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자연스럽게 청년들과 이야기 나누며 세대 간의 경험을 나누고 청년들의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더욱 청년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청년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청년담(談)다(多)에는 ‘승진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제 결혼은 필수가 아니네요’의 주제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청년세대의 다양한 시각과 생각을 담아내어 눈길을 끌었다고 한다.

김원호기자

## 횡성숲체원, 가을 야생화 특화 프로그램 운영... “우리 꽃길 걸어요”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속 기관인 국립횡성숲체원은 숲체원 내 자생하는 한국특산종 지역 식물 자원을 활용해 가을 야생화 프로그램 ‘우리, 꽃길 걸자’를 11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색 숲체험 콘텐츠 제공을 통해 식물 자원 보호 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에게 숲의 회복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봄부터 계절마다 다른 테마로 운영된 ‘우리, 꽃길 걸자’는 가을의 정취를 물신 느낄 수 있는 가을 식물자원 40종(야생화 21종, 나무 19종)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블루로 심리적 우울감과 무기력함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숲길을 걸으며 삶의 의지를 다지고 심리 안정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으로 특화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 ▲나를 나타내

는 자생식물을 알아보는 ‘자생식물 MBTI’검사 ▲꽃말 카드를 활용한 ‘나를 담은 야생화’, ▲단풍나무속·참취속 식물종을 이해하는 ‘제철 맞는 우리들’, ▲숲체원을 탐방하는 ‘우리, 꽃길 걸자’, ▲단풍 책갈피 만들기 등이 있다.

5명 이상의 참가단체는 누구나 운영일정을 협의하여 참여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운영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국립횡성숲체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글 내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QR코드 링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국립횡성숲체원 흥성현 원장은 “고려양귀비, 투구꽃 등 가을철 식물 자원을 활용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취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선명하게 피어난 야생화와 낙엽송 숲길을 걸으며 희망의 에너지를 받아갔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 수원시 영통발전연대,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장학금 지원



지난 10일, 영통발전연대는 저소득 청소년의 꿈과 미래를 응원하기 위해 관내 저소득층 청소년 6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번 장학금 대상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충실하고 타의모범이 되는 관내 중·고등학생 6명이며 중학생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증서가 수여됐다.

영통발전연대 송재동 회장은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활기찬 학창시절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성실히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지역사회가 함께하고 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용덕 영통구청장은 “지역 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장학금을 지원해 준 영통발전연대 회원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이번 장학금은 저소득 청소년에게 소중히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통발전연대는 2011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금 지급, 집수리사업,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및 교육·문화·체육·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나눔과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조혜영/기자

# 제27회 세계 농·수산업기술상, 경남도 3명 수상 쾌거

농업분야 대상 2(기술개발, 수출농업), 우수상 1(협동영농)

우리나라 농·수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과 소득향상에 기여한 우수 농·수산업인을 발굴하는 '제27회 세계 농·수산업기술상'에 경상남도가 농업분야에서 3명의 수상자를 배출하는 쾌거를 올렸다.

제27회를 맞은 세계 농·수산업기술상은 세계일보가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이 후원하여 우리나라 새로운 기술개발과 소득향상을 위해 애쓰고 수고한 농·수산업인을 발굴하기 위해 시상하는 상이다.

수상자 발표에 따르면 농업분야 기술개발부문 대상에 김종균(62세, 하동군), 수출농업부문 대상에 옥창호(51세, 진주시), 협동영농부문 우수상에 하동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재인, 60세)이 수상자로 결정되었으며 이와 함께 정창규(하동군) 농촌지도사와 김효기(진주시) 주무관이 지도기관 유공공무원(특별상)으로 선정되었다.

기술개발부문 대상을 거머쥔 김종균씨는 ㈜동천 농업회사법인을 경영하면서 ‘초고온 살청 공법을 이용한



녹차제조 방법’, ‘차 생엽세척 및 물 관리 시스템’ 특허를 출원하였다. 또한 녹차 잎 세척라인 및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고 차광막을 설치하는 등 맛과 향, 색이 우수한 고품질 차 생산 기술개발과 도입에 앞장섰다.

수출농업부문 대상을 수상한 옥창호(참진주버섯수출영농조합법인 대표)씨는 버섯 농가를 통합, 규모화하여 수출전문단지를 육성하고 최초 일본 수출을 시작으로 싱가포르, 호

주, 유럽연합 등 다양한 국가로 수출 시장 확대에 기여하였다. 국내 gap, 무농약농산물 인증 취득 등 지속적인 안전성 관리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운영 실태 평가에서 2018년도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지금까지 최우수 수출전문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협동영농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하동배영농조합법인(대표 정재인)은 하동군의 전체 배 농가가 참여하여 협동영농을 실천함으로써 생산비 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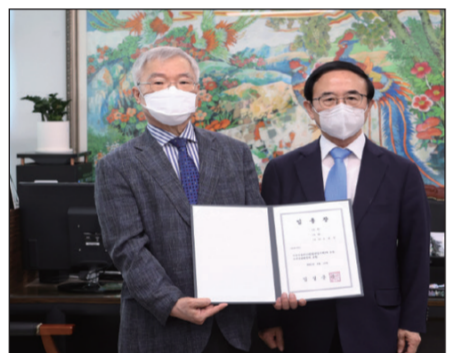


노동력을 절감하고 하동배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편, 세계 농·수산업기술상은 1995년부터 농업분야에만 시상해오다가 올해 처음 수산업분야를 추가하여 농업분야 4개 부문과 수산업분야 2개 부문에서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현재까지 우리도 우수실적은 농업분야 농업인 59명, 기관단체 5, 특별상 15명이다.

최광용/기자

## 소화기내과 전문의 김대곤 박사, 임실군 보건의로원장 취임



### 동부한 의료경험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 겸비

원장 겸 의과대학장, 보건대학원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재직하면서 쌓은 풍부한 의료경험과 탁월한 업무 추진력을 겸비했으며, 대민선료에 대한 친화력과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도 상당히 좋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실군 보건의로서비스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19 시기에 원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문을 연 김대곤 원장은 “지금까지 배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미려하나마 임실군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경영 위원, '수원시장 나눔유공 감사패 수상'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은 지난 9일, 서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경영 위원(서호새마을금고 서둔지점장)이 제22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수원시장 나눔유공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수상자는 서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매월 회의에 참여해 지역 내 리더십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70세 이상 독거남 어르신들과 음식을 만들고 나누는 『사두남 음식만들기』 특화사업에 참여해 어르신들의 삶의 활력을 제공하는데 기

여했다. 또한 서호새마을금고 서둔지점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스티커를 구비하여 지역의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고 복지서비스를 안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동 관계자는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매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서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혜영/기자

## 광주시 송정동 이순애씨·퇴촌면 송화원씨, 선행도민 표창장 수상



### 익산시, 매니페스토 경진대회 '최우수상' 쾌거

공동체강화 분야 수상, 시민주도 플랫폼 통해 정책 제안한 점 높게 평가

익산시가 전국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앞서 정현을 시장은 2021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 결과 최고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이번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을 통해 대외적으로 시민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자치단체로 확고히 인정받게 됐다.

13일 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인천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2회 2021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민선 7기 출범 이래 강조해 온 시민이 주체가 되어 익산시를 만들어 가는 '공동체 강화 분야'에서 받은 상이어서 의미가 더욱 크다.

익산시가 제출한 '내가 살고 싶은 도시, 시민이 직접 만든다' 우수 사례는 청소년, 청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들어 가는 익산시

민 공동체의 여정을 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점점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민·관·학이 협력하고 다양한 계층이 어우러진 시민주도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이 살고 싶은 익산시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정책화한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익산시는 '청소년 다이로움', '청년 희망네트워크', '시민 아카데미' 등 민·관·학 공동체 활동과 '문화29', '삼삼오오' 등의 소규모 공동체 활동으로 시민들이 서로 소통하고 제안하며 직접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정현을 시장은 “민선 7기 출범 이래 시민이 행복한 품격 도시 만들기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는 시민들이 모여 소통과 공감으로 익산시를 가꾸고 만들어가는 공동체 정신에서 비롯된다”며 “앞으로도 익산시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익산시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선수/기자



## 김제시,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박람회 우수상 수상



김제시는 9월 9일~12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농경문화 대표관광지 벽골제를 필두로 김제 관광 명소를 효과적으로 선보이며 기초자치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는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등 200여개 기관 및 단체에서 참가하였고, 관광홍보 및 바이어상담회, 스마트관광 컨퍼런스 등 관광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곳으로, (현)국전산업원에서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후원하였다.

김제시는 1,700년전 축조된 우리나라 최대·최고 수리시설 벽골제와 1,500년 고찰 금산사, 그리고 과거의 전통과 문화를 오롯이 간직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과 김제 시티투어 홍보 영상물 등을 선보여 관광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김제시 홍보관에서는 김제시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 지역 대표 특

를 무상으로 제공, 클린하우스를 이용해 학생 및 주민들의 안전한 통학로와 주변 환경개선에 기여했다.

이와 함께 송씨는 복지증진을 위한 지역행사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매월 50만원씩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동현 시장은 “주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애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지금처럼 깨끗하고 살기 좋은 광주시 만들기에 열심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강호/기자

산물인 지평선 쌀을 나눠주고 천연 염색, 한지공예 등 만들기 체험 활동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김제시는 새만금고속도로와 신항만과 연결된 사통팔달 교통의 요충지로 새만금수목원, 크루즈항만 등 새만금개발권역과 연계한 해양관광의 명소로 심포 마리나항만 조성 계획과 마리나 배후부지 개발계획을 홍보하였다.

김제시는 이번 대한민국 국제 관광박람회 참가 및 우수상 수상으로 김제시의 아름다운 경관을 알리는 것은 물론, 잠재 관광객의 실질적인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이번 박람회 참가로 국내외 관광 관계자 및 잠재 관광객 대상으로 주요 관광 자원 및 인제도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평선의 고장 김제의 아름다움을 전국에 널리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 경남도민여러분, 이 상품권은 어때요? 슬기로운 경남ZERO 상품권 생활!

### 9월, 지역 사랑 상품권 외 모바일 상품권 3종 할인구매 가능



경남도는 9월 추석을 맞아 도민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촉진을 위하여 다양한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홍보 중이다.

경남에서 현재 9월 사용 가능한 제로페이 상품권은 경남사랑상품권 외에도 △부울경 메가시티상품권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등이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상품권’은 초광역 메가시티인 부·울·경에서 사용할 수 있고, 9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한시적으로 1인당 최대 20만원까지 5% 할인구매가 가능하다.

이 상품권은 부산·울산·경남지역 내 일부 점포(대규모/중대규모 점포 및 유휴업소 등)를 제외한 대부분의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추석연휴 동안 3개 시·도를 방문하는 귀성객도 사용 가능하다.

‘대한민국 수산대전상품권’은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한국수산회가 발행하는 상품권으로 1인당 월 최대 20

만원까지 구매가능하다. 20%의 높은 할인율로 제철 수산물인 전어, 꽃게, 대하 등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현재 경남도 내 수산대전상품권의 오프라인 사용처는 마산어시장·삼천포수산물시장 등 약 1,850개가 있으며, 은누리 전통시장·은누리마켓이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상시 제공하는 10% 할인에 더하여 추석을 맞아 월 구매한도를 100만원까지 증액하는 특별할인행사를 9월 1일부터 9월 17일까지 진행한다.

이 외에도 경남도는 현재는 판매가 완료된 ‘대한민국 농협상품권’의 도내 사용처를 확대하여 기존 사용처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경남상인연합회와 협조할 계획이다.

각 상품권의 오프라인 사용처는 제로페이 상품권 앱 내 ‘가맹점 찾기나

제로페이 가맹점 찾기 전용앱인 ‘지맵(Z-MAP)’에서 조회할 수 있고, 제로페이 공식 블로그 또는 상품권 앱 내 ‘공지사항’에서도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남사랑상품권 및 시·군 상품권의 온라인 사용처도 확대되었다. 경남형 배달앱인 ‘핑퐁’(진주·통영), ‘떡깨비’(김해), ‘배달의 진주’(진주)에서는 경남사랑상품권과 해당 시군 상품권으로 배달주문이 가능하며, 경남대표 온라인쇼핑몰인 ‘e경남몰’에서도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구매가능하므로 이를 잘 활용하면 더욱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할 수 있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정책과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지출이 많은 달에 다양한 제로페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알뜰한 소비가 가능할 것”이라며 “많은 도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 수원 광교홍재도서관, '다시 책 읽기를 배우다' 수강생 모집



수원시 광교홍재도서관이 온라인 강좌 ‘다시 책 읽기를 배우다: 나를 만나다, 나를 찾다’를 운영한다. ‘다시 책 읽기를 배우다’는 둔기호 테·데미안 등 소설 속 등장하는 인물을 통해 수강생들이 자신의 모

습을 살펴볼 수 있는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박초이 소설가가 10월8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요일(오전 10시~정오) 영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활용해 비대면 강좌를 진행한다.

첫 강연은 10월8일 ‘소외와 소통 그리고 꿈’을 주제로 주제 도서인 ‘변신(프란츠 카프카 지)’을 읽고 강좌에 참여할 수 있다.

이어 10월15일 ‘욕망과 사랑’(오래레 드 발자크의 ‘나귀 가족’), 10월22일 ‘운명과 우연’(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10월29일 ‘이상과 현실’(미구엘 드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이 진행된다.

광교홍재도서관은 강좌 수강생 4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강의에 참여할 시민은 광교홍재도서관 홈페이지 ‘독서문화프로그램’에서 ‘다시 책 읽기를 배우다: 나를 만나다, 나를 찾다’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조혜영기자

## 경기도, 추석 맞아 다양한 온·오프라인 우수농산물 특판전 열어

### 경기도 온·오프라인 추석맞이 농특산물 특가 판매부터 다양한 이벤트 풍성

경기도는 추석명절을 맞아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한 우수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진행한다. 12일 밝혔다.

먼저 경기도 농수산물 온라인몰 ‘마켓경기’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15일까지 ‘할인 더하기, 추석기획전’을 열고 있다. 경기미, 과일, 참(들)기름, 버섯, 견과류, 정육(돼지·소) 등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마켓경기에 입점한 주요 상품을 대상으로 최소 20% 이상 할인 금액으로 판매한다.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오는 22일까지 G·마코(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등 경기도 농수산물 입점 품목을 구매 시 20% 할인쿠폰을 선착순 지급할 예정이며, 경기농식품진흥관

(고양, 수원, 성남)에서도 16일부터 20일까지 추석맞이 특판전을 진행한다.

또한 농협하나로마트 내 안테나숍(고양)에서는 50% 할인 금액으로 추석 특판전을 진행하고, 비온드림 입점 제품 중 업선된 제품들을 선정해 ‘마켓경기 반값특가’와 대형 온라인몰 판촉행사를 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백화점 건대점에서는 경기미 쌀복합식품매장 ‘경기미소’에서 경기미·잡곡 3종 또는 5종을 소비자가 원하는 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한 선물세트를 구매할 수 있으며,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는 ‘경기가 좋다, 경기’ 경기도 농특산물 특별기획전을 이달 20일까지 준비했다.

아울러 도는 추석맞이 소비촉진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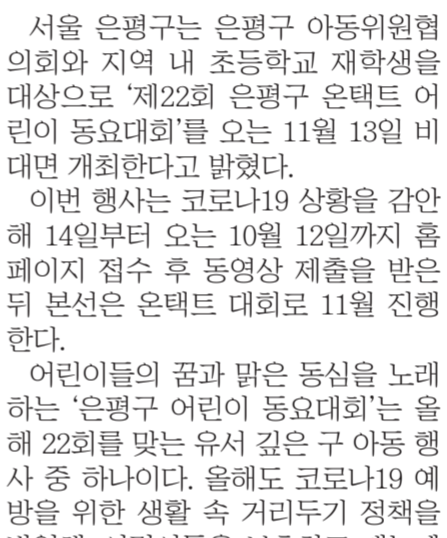
위해 다음 달 27일까지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10곳에서 로컬푸드 할인, 구매금액별 로컬푸드 증정, 코로나19 극복 건강농산물 체험 등 행사를 진행한다.

안동광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이번 추석맞이 농특산물 기획전은

추석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인한 도민들의 근심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한 것으로 경기지역 농산물을 많이 애용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 제22회 은평구 온택트 어린이 동요대회 개최



서울 은평구는 은평구 아동위원회 의회와 지역 내 초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제22회 은평구 온택트 어린이 동요대회’를 오는 11월 13일 비대면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14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홈페이지 접수 후 동영상 제출을 받은 뒤 본선은 온택트 대회로 11월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꿈과 맑은 동심을 노래하는 ‘은평구 어린이 동요대회’는 올해 22회를 맞는 유서 깊은 구 아동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정책을 반영해,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재능계발과 정서함양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온택트(Contact: 온라인)를 통해 대면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본선 대회는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진행한다. 참가 어린이는 물론 주민 누구나 대회 관람과 댓글 응원, 온라인 인기 투표 등을 통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아동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는 아동권리교육 동영상과 흥겨운 아동인권음악회 공연도 함께 제공해 보다 풍성한 온택트 어린이 축제의 장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 대상은 은평구 지역 초등학교

재학생으로 저·중·고학년별(1~2학년, 3~4학년, 5~6학년) 지원 가능하며 특수학교 재학생(특수교육대상자 포함)은 특별부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구 홈페이지 알림판을 통해 신청접수광장(은평구 온택트 어린이 동요대회)에서 상세 안내와 유의사항을 참조해 접수한다. 한국동요(전래동요 또는 창작동요) 1절을 독창이나 중창(4인 이내)으로 노래해 촬영한 동영상은 오는 10월 12일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강성원기자

## 코로나19 시대, 함께하는 자살예방 [함께하시흥] 개최



시흥시는 2021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고자 ‘함께하시흥’ 행사를 9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자살예방의 날 행사는 ‘9,100보 걷기 Challenge’와 ‘생명존중 에세이 공모전’으로 구성됐다.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을 기념해 일주일 평균 9,100보 걷기 Challenge와 생명존중 에세이 공모전을 통해 자살예방의 날을 인식시키고, 생명존중과 생명사랑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위해 마련됐다.

본 행사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참가자들에게는 선착순으로 소정의 상품이 제공된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모든 문의는 시흥시자살예방센터로 하면 된다.

한편, 자살예방센터는 시흥시의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자살문제 상담 ▲자살유족 지원서비스 ▲자살예방교육 등 여러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 안산시, '천재화가' 김홍도 주제로 사생대회 개최



안산시는 안산 출신의 ‘천재화가’ 김홍도를 주제로 관내 5세 이상 유치원생 및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제2회 김홍도 사생대회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오는 10월 중순 개최 예정인 ‘제2회 김홍도 축제’의 부대행사로 마련된 사생대회는 김홍도의 예술혼을 계승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안산시 주최, 안산시학원연합회 주관으로 진행된다.

올해 대회 주제는 ‘김홍도 상상 초상화 그리기 및 김홍도와 관련된 자유화’다.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온택트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이날부터 이달 27일까지 안산시 홈페이지로 개별 접수를 받는다. 학교·학원·어린이이집·유치원 등 단체

는 이메일로 참가 신청을 하면 된다. 이어 10월1일 주회 측으로부터 배부된 화지도 작품을 그린 뒤 10월 15~22일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되며, 10월 중 공정한 공개 심사를 통해 우수 작품을 선발해 11월 중 발표 및 수상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참조하거나 안산시학원연합회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관내 어린이, 학생들에게 안산 출신 천재화가 김홍도의 작품을 알리고 우리 고장 안산의 역사·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김홍도 축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최종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최정복기자

## 경북 사투리 공모전 및 사투리 경연대회 개최



경북북도와 경북문화재단은 사투리를 통해 경북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고 지역사투리를 잘 가꾸고 다듬어 사라져가는 우리말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내달 7일 ‘경북 사투리 큰 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이번 경북 사투리 큰 잔치는 사투리 공모전과 사투리 경연대회로 구성되어 있다. 사투리 공모전은 9월 16일까지 사투리와 관련된 주어진 어휘, 회화, 시, 웹툰, 영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사투리 경연대회는 경북의 사투리를 구성된 연극, 풍토, 노래 등 다양한 장르로 9월 30일까지 참여 신청 가능하며 경북 사투리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 방법은 경북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웹하드 및 이메일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경북북도 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투리 공모전은 심사 후 선정된 작품을 10월 9일부터 15일까지 전시할 계획이다.

사투리 경연대회는 10월 7일 오후 2시 경북도청 다목적 홀에서 ‘기운아재’가 진행하는 경연대회에 참석해 수상자를 가린다.

시상식은 10월 9일 오전 10시 30분 경북도청 동라관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아울러 경북 사투리 큰잔치 총상금은 1000만원으로 분야별 대상 각1명 300만원, 최우수상 각1명 100만원, 우수상 각2명 50만원으로 총 8명에게 상금이 지급될 계획이다.

김상철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경북도는 다양한 한글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지역 사투리의 언어학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경북인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제고할 수 있는 이번 큰 잔치에 많은 도민이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김세기기자

## 제천로컬푸드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

###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제천로컬푸드를 선물하세요

제천시가 민족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 촉진 및 농산물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추석맞이 특별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제천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행사는,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제천로컬푸드 직매장(이미트

점, 1호점) 및 온라인몰(로컬푸드몰, 배달모아)에서 사과, 포도, 한과세트 등 42종의 선물세트를 구성하여 판매되며, 기존 판매가에 7에서 최대 30%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제천 시내지역은 무료배송(관외배송 2천 원) 혜택까지 함께 제공한다.

제천로컬푸드협동조합 김현주 조합

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가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선물세트 판매를 통해 로컬푸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합리적인 가격에 우수한 품질을 가지고 있는 로컬푸드에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김현호기자

# 광명시,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함께 순환경제도시로 한 걸음 앞서 나간다

## 제 13 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순환경제도시 공동 워크숍 개최

광명시는 10일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피터 노만 밴스보)와 함께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순환경제도시 워크숍'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13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시민 실천 프로젝트, 자원순환과 관련한 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순환경제도시 국내외 우수사례 공유, 토론 등으로 진행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와 이케아 코리아,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경제연구원 부설 쓰레기센터가 우수사례 발표 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자원순환과, 사회적경제와 등 순환경제 관련 공무원과 시민단체, 협동조합, 창업가

가 함께 참여해 지방정부의 순환경제 실천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폐건축자재, 의류 등 북유럽 순환경제 사례를 발표하고, 이케아에서는 한국 매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ESG 경영실천 사례를 제시했다. 쓰레기센터에서는 시민 중심의 자원재활용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순환경제에 대한 공직자와 기업, 시민의 관심과 실천의지를 북돋았다.

이어 2부에서는 광명형 순환경제 적용방안 마련을 위해 시민 실천 프로젝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민과 행정, 발체자들 간에 열린 토론이 이어졌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순환경제는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도시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이라며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행정과 기업, 시민이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순환경제도시 협력 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장(피터 노만 밴스보)은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주제인 지방정부의 전략적 추진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내 선도적인 자원순환경제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해 순환경제도시를 선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순환경제 관련 스타트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덴마크 이노베이션센터는 주한 덴마크 외교부 소속으로, 우리나라와 덴마크 양국간 대학, 연구기관 및

R&D 기반 기업들 간의 연계 역할로 과학기술·혁신·고등교육 분야 내 네트워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광명시는 2020년 광명시 SDG 17개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민과 함께 '일상 속 실천과 변화, 함께 성장하는 광명'이라는 비전 아래 선포식을 개최한 바 있다.

올해 광명시는 지속가능발전 선도 도시로 어린이의 인식확산을 위한 ESD 교재를 제작했으며, UN대학 RCE 인증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내 기업과 ESG 협업을 통해 행정, 기업 시민이 민관 협력사업을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예정이다.

최만식기자

##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주)케이닷코리아, K-메디컬 아시아 시장 전용 플랫폼 '케이닷' 오픈



하남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주)케이닷코리아(대표 장예현)가 K-메디컬 아시아 시장 전용 웹 플랫폼 'K-DOD(케이닷)'을 지난 9일 오픈

했다고 전했다. 'K-DOD(케이닷)'은 국내 메디컬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니즈를 충족하고 한국의 우수한 제품 및 서비스

에 대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는 아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기 위한 웹 플랫폼이다.

'케이닷'은 한국의 의료제품과 메디컬 코스메틱, 홈케어 제품 등을 선별해 아시아 시장에 소개하고, 온라인 리서치를 통한 시장 정보 제공과 플랫폼을 통한 언택트 마케팅, 현지 지사나 파트너사를 통한 통합솔루션 등을 제공한다.

(주)케이닷코리아 장예현 대표는 "아시아 메디컬 산업현장에서 직접 근무하며 우수한 의료 제품에 대한 아시아 의료진과 환자들의 니즈를 확인했다"라며 "높은 진입장벽과 시장정보 부족 등으로 현지 국가로의 진출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국내 의료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한국 메디컬 업계 최고의 아시아 파트

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주)케이닷코리아의 '케이닷' 런칭을 축하하기 위해 지난 9일 캠퍼스에서 오픈 기념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장예현 대표를 비롯한 (주)케이닷코리아의 임직원들과 캠퍼스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순천향대학교 나윤수 교수, 하남시 (기)지원과, 캠퍼스 박준수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하남시(기)지원과)와 순천향대학교의 나윤수 교수는 "현재 중앙·동남아시아에서 메디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대단하다. 전 세계적으로 K-메디컬이 인정받고 있는 지금, 좋은 사업 아이템을 선택한 만큼 큰 성공으로 보답받았으면 좋겠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박강호기자

## '1200만원 목돈 마련' 청년내일채움 공제 신청하세요!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으로 올해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청년 본인 300만원 + 정부 600만원 + 기업 300만원

▶ 총 1,200만원 자산형성 \*2년간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중소기업(5인 이상)\*에 신규로 취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12개월 이내의 청년

\* 다만, 지식 서비스 산업·문화콘텐츠 산업 등은 1-5인 기업도 가입 허용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가입을 원하는 청년 또는 중소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9월 8일부터 신청 가능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재은기자

## 대구시, 든든한 추석 연휴 아동급식 지원 대책 마련

### 추석 명절 연휴 기간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 대책 수립

대구시는 추석 명절 연휴 기간(21.9.18. ~ 9.22.) 동안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원활한 급식 제공을 위해 가맹점 운영현황 등을 홍보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추석 명절 연휴기간 전체 급식대상 아동 15,777명 중 10,459명이 급식카드를 이용하고 나머지 5,318명은 자가 또는 가족이나 친인척 등과 식사를 할 것으로 조사됐다.

추석 연휴 기간 급식제공 업체 휴무로 인한 결식아동의 급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식 가맹점의 추석 명절 영업현황 안내, 연휴기간 전 부식 사전제공, 급식 제공이 가능한 주민이나 민간단체를 파악해 결식우려 아동과 사전연계 조치, 식중독 예방 등 위생관리 안내 등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급식 가맹점 휴무 여부 등 영업현황을 파악해 급식대상 아동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안내하고, 시와 구·군 홈페이지 게시 및 당직실 비치, 120달구벌콜센터 안내 등을 통해 연휴 중 급식카드 가맹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아동급식카드에는 '컬러푸드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일반음식점, 부식 판매점, 편의점 등에서 이용 가능하며, 가맹점은 컬러푸드카드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한국인의 인사는 '식사하셨어요?'에서 시작하며 한 가족을 '식구'라고 표현하는 정도로 한 끼 식사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강하다"며,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아동들이 끼니



를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영기자

## 해남군, 소상공인 저금리 희망대출 공모사업 선정

해남군이 행정안전부 소상공인 희망대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3,000만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최종 선정된 지자체 21곳에는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씩을 지원하게 된다.

해남군은 확보된 국비를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사업 등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해남군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3종 패키지 특례대출, 보증수수료, 이자 지원이 실시하고 있다. 무담보·저신용 등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신용대출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보증수수료는 최대 50만원, 대출금리(3.4%) 중 3%를 군비로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출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군은 최근 2년간 군비 6억원을 출연해 총 60억원의 소상공인 대출이 이뤄졌다.

또한 300여 업체에 이자지원과 함께 특례보증에 따른 보증수수료를 지원해 위기 극복을 위한 출구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며"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속적이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을 발굴·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양영욱기자

## 부산시, 글로벌 도시경쟁 속 도시개발전략 모색



HDC현대산업개발 '박희은 본부장' 강연, 글로벌 도시경쟁 속의 부산시 도시개발 방향 제시

부산시는 오늘(10일) 오전 제60회 부산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주제로 부산시 도시개발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박희은 부산시장을 비롯해 실·국장,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장 등 40여 명이 참석했고, 롯데, 오모테산도 등 일본 도시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한 종합 디벨로퍼(개발사업자)인 HDC현대산업개발 박희은 본부장이 강연을 맡았다.

오늘 강연에서 박 본부장은 글로벌 도시경쟁 속 선진도시들의 활성화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디벨로퍼의 시각에서 부산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3가지 부산의 비전을 제시했다. 비전은 ▲다채로운 매력이 넘치는 품격있는 도시 ▲빠르고 생활이 편리한 글로벌도시 ▲사람과 기업이 지속적으로 모이는 개방된 도시이다.

또한, 해양레저관광과 마이스산업 중심의 동부산권역, 해양경제 및 금융과 도시관광 중심의 원도심권, 스마트 시티와 향반·물류 산업 중심의 서부산권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옹크 사업을 바탕으로, 도심 간의 콘테츠들이 서로 끌어당기는 강한 매력의 마그넷 권역이 전략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본부장은 국제행사인 EXPO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전세계에 부산의 경쟁력을 전파하여 새로운 도시구조 속에서 강력한 부산의 포지셔닝을 구축하여야 하며,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지가 지역을 살리고, 도시를 살리고, 사람을 살린다고 강조했다.

강연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김윤일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미래 도시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부산시의 뜻과 의지가 중요하다"며, "민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글로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부산시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남궁영기자

## 영천별빛한우, 대도시 한우 직판행사 성황리 종료

### 대구 엑스코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 행사에서 "영천별빛한우" 홍보



영천시와 영천축협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도농상생 한우 소비촉진 행사가 소비자들의 참여와 열기 속에 한우의 참맛을 알리는 행사로 성황을 이루며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국한우협회 대구경북도지회에서 주관한 이 행사에는 도내 5개 축협(영천축협, 경산축협, 예천축협, 안동봉화축협, 대구축협)과 한우협회가 참여하였고, 한우 직거래 판매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한우고기를 선보였다.

또한, 유명 먹방 유튜버(밥굽남) 녹화

방송, 영천와인 및 영천포도 판매, 구매 이벤트, 버스킹 공연 등 다채로운 내용이 열려 한우고기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로 발걸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추석맛이 한우 직거래 판매 행사를 통해 영천별빛한우를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식기자



# 새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 '러블리궁녀즈' 첫스틸 공개

## 사진에서 느껴지는 힐링 내음! '완소 궁녀즈' 탄생



MBC 2021 하반기 기대작 '웃소매 붉은 끝동' 속 '궁녀즈' 이세영-장혜진-이민지-하율리-이은샘의 스틸이 첫 공개됐다.

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신이 선택한 삶을 지키고자 한 궁녀와 사랑보다 나라가 우선이었던 제왕의 애절한 궁중 로맨스 기록. 뜨거운 인기를 구가한 강미강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며, 이준호(이산 역)-이세영(성덕임 역)이 '세기의 궁중 로맨스'의 두 주인공으로 만나 대한민국의 사극 열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웃소매 붉은 끝동' 측이 9일, 궁궐 담장 안을 유쾌하고 아기자기한 케미로 채운 '궁녀즈' 이세영, 장혜진(서상궁 역), 이민지(김복연 역), 하율리(배경희 역), 이은샘(손영희 역)의 스틸을 공개해 기대감을 한층 고조시킨다. 극중 이세영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하는 궁녀이며 훗날 '의빈 성씨'가 되는 '성덕임' 역할을, 장혜진은 덕임을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스승 '서상궁' 역할을 맡았으며, 이민지-하율리-이은샘은 각각 대전의 세수간사인 '김복연', 빈공의 집창나인 '배경희', 동궁의 세담방나인 '손영희' 역

을 맡아 덕임과 막역지우의 관계를 형성할 예정.

이와 함께 공개된 스틸에는 '궁녀즈'의 소박하고 평화로운 궁궐의 일상이 담겨 있다. 먼저 이세영-이민지-하율리-이은샘은 웃소매를 붉게 물들인 새침착한 어여쁜 생각시의 자태와 함께, 천진난만한 왈가닥 소녀들의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특히 물가에 울망줄망 모여서 물수제비를 뜨는 궁녀들의 개구진 모습은 절로 웃음을 자아낸다. 뿐만 아니라 이세영-이민지-하율리-이은샘은 웅기종기 서서 울적한 기분을 달래기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며 희로애락을 나누고 있어, 이들이 선보일 끈끈한 '궁녀 케미'에 기대감이 높아진다.

그런가 하면 상궁 복장을 한 장혜진은 생각시들을 바라보며 따사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 흡사 딸 바보의 눈빛으로 어린 생각시들을 바라보는 장혜진의 모습이 보는 이의 마음까지 훈훈하게 덥힐 정도. 이에

부도 형제 하나 없는 궁에서 평생 서로만을 의지하며 살아야하는 궁녀들에게 포근하고 따뜻한 품을 내어줄 장혜진의 활약이 기대된다. 동시에 장혜진이 이세영을 비롯해 천진난만한 궁녀들과 만들어갈 케미스트리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이에 '웃소매 붉은 끝동' 측은 "이세영-장혜진-이민지-하율리-이은샘이 실제 현장에서 가족 같은 케미를 뽐내고 있다. '궁녀즈'가 만나면 촬영장에 왈가닥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화기에애한 분위기가 연기에도 자연스럽게 묻어나고 있으니 이들의 활약을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MBC 새 금토드라마 '웃소매 붉은 끝동'은 '자체발광 오피스', '손 꼭 잡고, 지는 석양을 바라보자'를 연출한 정지인 감독과 '군주-가면의 주인'을 공동 집필한 정해리 작가가 의기투합한 작품으로 오는 11월 5일 밤 10시에 첫 방송될 예정이다.

현유주/기자

# 케이시, '갯마을차차차' 두 번째 OST 주자 출격!



## 12일 오후 6시 '어느 햇살 좋은 날' 발매!

'우리 어디로든 떠날 수 있어', '단한 번뿐인 인생의 마지막 날까지'와 같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로맨틱한 가사와 편안한 멜로디가 듣는 이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케이시는 가창은 물론 코러스까지 직접 맡아 참여하며 완성도를 높인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앞서 '갯마을 차차차' 측은 '음색장애' 카더가든이 첫 주자로 나선 OST Part 1 '로맨틱 선데이'를 발표해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심플한 멜로디 라인을 가진 리더미컬한 포크송 곡 '로맨틱 선데이'는 카더가든의 매력적 음색과 '갯마을 차차차'의 낭만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졌다는 평을 받았다.

한 번만 들어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대중적인 멜로디로 강한 중독성을 자랑하는 이 곡은 발매 후 멜론, 지니, 벅스 등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집계하는 OST 차트 상위권에 동시 진입해 눈길을 끌며 드라마에 이어 OST 마저 힐링을 선사한다는 호평 속에 후속 OST에 대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러한 관심 속에 카더가든이 이어 두 번째 OST 주자로 나선 케이시가 부른 '갯마을 차차차' OST Part 2 '어느 햇살 좋은 날'은 오는 12일 오후 6시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며 또 다른 감성의 힐링 OST를 선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갯마을 차차차'는 현실주의 치과 의사 윤해진(신민아)과 만능 백수 홍만장(김선호)이 찐내와 사람내음 가득한 바닷마을 공진에서 벌이는 티키타카 힐링 로맨스로 신민아, 김선호, 이상이, 김영욱, 조한철, 공민정, 인교진 등이 출연한다. 매주 토, 일 밤 오후 9시 방송.

최재은/기자

# 베리베리! 'TRIGGER' 美 Euphoria 부터 英 NME까지 해외 매체 '극찬세례'!

새로운 K팝 대세 아이돌로 떠오른 베리베리(VRIVERY)가 해외 매체들의 극찬을 받고 있다.

최근 미주를 비롯해 유럽, 남미, 아시아의 주요 유력 매체들은 베리베리의 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과 타이틀곡 'TRIGGER'를 집중 조망하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주요 매체인 Envi Media는 약 5개월 만에 컴백한 베리베리에 대해 "데뷔 2년 반 만에 베리베리는 이미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았다"고 극찬했으며, Euphoria 역시 "무한한 매력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

수년에 걸쳐 그들은 전세계적인 팬층을 확보했으며 독특한 음악 스타일로 K팝 씬을 지배하는 길을 가

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세계적 권위의 영국 음악 매체 NME는 "사운드와 스타일 면에서 한층 성숙해졌다"고 소개하며 베리베리의 음악성과 스타일에 대해 주목했다.

이 외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BuzzFeed)도 베리베리와 인터뷰를 공개하며 이들의 컴백을 집중 조명했으며, 브라질의 유명 매체 BreakTudo를 비롯해 대만 주요 매체인 ETtoday, Appledaily, NOWnews, 인도 최대 연예 매체 Pinkvilla, 태국 유수 매체인 MOUTH SADED, TRUE INSIDE, DAILY NEWS, JOOX 등 전세계 약 20개 이상의 다양한 매체들이 베리베리의 컴백에 주목하며 해외에서 높아져가고 있는 성과에

놀라워했다.

베리베리의 여섯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TRIGGER'는 현재 빌보드, 아이튠즈 차트를 휩쓸며 인기 순항 중이며, 컴백 직후 미국 아이튠즈 앨범 차트, K팝 송 차트 1위에 오른데 이어 최근에도 독일,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 총 4개 국가 아이튠즈 K팝 차트 정상을 차지하는 등 흥행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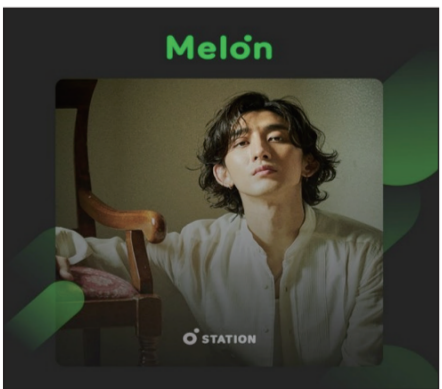
또한 최신 빌보드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4위에 오르며 글로벌 차트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해 앞으로의 글로벌한 행보에 더욱 관심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베리베리는 새 앨범 'SERIES 'O'' [ROUND 2 : HOLE] 타이틀곡 'TRIGGER'로 각종 음악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방송 활동을 진행



최광수/기자

# 잔나비 최정훈, 9일 멜론 스테이션 '인디스웨이' 출연!



그류사운드 잔나비의 최정훈이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 '인디스웨이'에 9일 출연한다.

이날 멜론에 따르면 2년 4개월 만에 정규앨범으로 컴백한 잔나비의 최정훈이 '인디스웨이'에 출연해 '최정훈에게 향하는 길', '잔나비의 또 다른 행복의 나라' 등의 코너를 진행하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최정훈은 잔나비의 신보 '환상의 나라: 지오르보 대장과 구닥다리 영웅들' 소개를 비롯해 아날로그 감성 넘치는 일상에서 벗어나 최첨단 현대 문명 속에서 생활하는 근황, 자신에 관한 TMI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객에게 따르면 최정훈은 앞서 '인디스웨이' 사전 녹음 현장에서 "작업 환경을 바꾸고 있다"며 2G폰 유저에서 벗어나 스마트폰에 스마트워치까지 구비하게 된 사연을 밝혀 호기심을 불러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호불호가 갈리는 음식을 즐겨 먹는다"며 좋아하는 음식으로 민트초코 음료를 언급해 현장 관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는 후문. 뿐만 아니라

진행자인 음악 평론가 정민재와 대화를 나누다 얼굴을 붉히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그 이유를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앞서 잔나비는 지난 7월 정규3집 '환상의 나라: 지오르보 대장과 구닥다리 영웅들'을 발표했다. 타이틀곡 '외딴섬 로맨스'를 포함해 총 13개 트랙으로 구성했으며, 전곡 최정훈이 작사, 작곡하고 김도형이 작곡했다.

잔나비의 최정훈이 출연한 '인디스웨이'는 9일 오전 10시 멜론을 통해 공개된다.

한편 '인디스웨이'는 뮤지션 강아술, 음악평론가 정민재가 진행을 맡아 인디/언더그라운드 씬의 신인부터 레전드 아티스트까지 다양한 뮤지션과 만나는 멜론 스테이션 프로그램이다.

이외에 멜론 스테이션에서는 빅히트뮤직 전용 프로그램 'BIG HIT MUSIC RECORD', SM 전용 프로그램 'SMing', 레퍼 이영지가 대표 국립 뮤지션들과 함께 하는 '힐프라이드', 아이돌부터 실력과 싱어송라이터까지 다양한 뮤지션이 직접 DJ가 되어 진행하는 멜론스테이션의 대표 프로그램 '오늘음악', 뮤지션 나열과 예코브릿지가 함께 진행하는 '디깅 온 에어', DJ 뽀로로가 인기 동요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뽀로로의 '뽀뽀를 높여요', 가장 쉽고 재미있는 클래식 '바리톤 정경의 브라보 클래식', DJ 뽀디 박선영 아나운서와 함께 나누는 영화 이야기 '영화& 박선영입니다', 정기고의 'SOULBY SEL', '이달의 루키'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최재은/기자

# 신인 걸그룹 '레아(RHEA)' 순백색 앨범 재킷 공개!



## 레아, "우리의 노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 팬들에게 전근하게 다가서는 자연스러움과 우아함에 조점

신인 걸그룹 레아(RHEA)가 다가 올 앨범 발매에 앞서 앨범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다.

레아의 소속사 IO엔터테인먼트는 레아의 앨범 발매와 데뷔 무대를 앞두고 타이틀곡 'TIME TRVER'의 재킷 이미지를 공개했으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레아처럼 순백색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앨범 재킷에 담았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레아의 재킷 이미지는 순백색 드레스에 대지의 여신다운 우아함과 풍요로움을 표현했고, 또 다른 이미지에는 당장 여행을 떠날 듯한 캐주얼 의상 콘셉트로 자연스러우면서도 멤버들의 개성을 살린 친근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재킷 이미지를 공개함으로써 베일에 가려있던 멤버들의 개성

을 살펴볼 수 있어서 더욱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고 있다.

레아(RHEA)는 "데뷔곡 시간여행(TIME TRAVEL)은 중독성 강한 일렉트릭 사운드로 한번 들으면 노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해의 팬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라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은 노래와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레아는 해외 공식 팬클럽이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국가로는 영국, 미국, 이탈리아, 파라과이, 남미, 아랍, 인도, 폴란드,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 등이 있으며, 남미의 'K-world'와 일본의 'K-pop' 메거진에서 멤버 소개와 인기투표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으며, 레아의 노래와 데뷔 무대에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한다.

최만식/기자

# '한가위 대기획 심수봉' 3차 티저 영상 공개

## 심수봉 올타임 레전드 예고

'국민 가수' 심수봉의 26년만의 단독 TV쇼 출현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의 3차 티저 영상 2종이 공개됐다. 전국민에게 선사하는 한가위 선물임을 증명하듯 '심수봉이 심수봉한 올타임 레전드 무대'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 측이 심수봉의 가슴 벅찬 감동의 무대를 미리 엿볼 수 있는 '3차 티저 영상 2종'을 공개했다.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은 세대를 관통하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심수봉의 26년만의 단독 TV쇼. 위기의 순간을 함께 견디며 대한민국의 지력을 보여준 국민들에게 격려와 감사, 희망을 전하는 언택트 공연이다.

공개된 영상에는 심수봉의 '데뷔 43년만에 심수봉도 활짝 피어났다'라는 소감처럼 그녀의 명곡 '백만송이 장미'를 연상시키듯 붉은 장미 속에서 대왕 장미처럼 활짝 피어난 모습, 심수봉이 리프트에 올라서 드레스 자락을 늘어뜨린 채 열창하는 모습과 열정적인 드러머로서의 변신이 함께 담겨 눈길을 끈다.

3m의 상공에서도 가슴을 울리는 보석 같은 가창력과 섬세한 표현력으로 무대의 완성도를 높인 국민 가수의 면모는 어디서도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무대를 예고한다.

특히 심수봉은 "(공연 최초로) 리프트에 올라가는 소중한 첫 경험을 했다"는 소감으로 특별한 애정을 드



러닝 '심수봉 리프트 드레스'를 탄생 시키며 독보적 아우라를 뽐내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와 함께 심수봉의 의상 퍼레이드가 이목을 집중시킨다. 심수봉은 그린 컬러 드레스로 엘레강스한 분위기를 뽐내는가 하면 화이트 드레스로 순백의 미를 드러냈다.

또한 청바지에 화이트 셔츠, 그린 컬러 재킷에 화사한 옐로우 블라우스를 포인트로 매치하는 등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심수봉의 화려한 비주얼이 시선을 절로 강탈한다.

이처럼 백만송이 장미에서 피어난 무대 연출에서 리프트 드레스까지, 2021년 한가위를 책임질 심수봉의 선물 같은 공연은 오직 KBS2에서만 만날 수 있다.

한편 KBS '2021 한가위 대기획 '피어나라 대한민국, 심수봉'은 26년만의 TV 단독쇼인만큼 심수봉과 KBS가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하고도 잊지 못할 한가위 선물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본 공연은 9월 19일 일요일 저녁 8시 KBS2에 방송된다.

현유주/기자